2017.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7.25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종성, 이상진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김미리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8	8	-	2	18	-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6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건	6건	7월
교양	시사프로그램에서 '생명존중, 환경보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시사플러스에서 <햄버거병 논란 속, 여름철 식품 위생 주의보!>7/27 방송	7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의 "뉴스&이슈" 지역소재도 다루길	아침이 좋다(정보 교양프로그램) 7/6 "뉴스&이슈"에서 지역 자사고, 외고 문제 취급.	7월
보도	가뭄 극복 대안 제시하는 보도 필요	뉴스데스크(7/11) "지하 저수지.해수 담수화로 가뭄 극복 제안" 보도	7월
보도	대덕연구단지 관련 뉴스 활성화 필요	대전 과학벨트 진입도로 착공(7/7), 세계 최초 AI 축구대회 열린다(7/28), 원자력 연구기술 네덜란드에 수출(7/31) 등 지속적 보도	7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의상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아침이 좋다, 허참 토크&조이" 등 프로그램 진행자 의상을 계절과 시의에 맞게 착용	7월
보도	4차 산업혁명 지속적 관심을	뉴스데스크에서 연속 기획시리즈로 4차 산업혁명- 로봇세상 꿈꾼다(7/9), 인력 키워라!(7/16), 대중 혁신시대(7/23), 농업혁신(7/30) 등 보도	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
	송길헌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웍스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7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시사플러스(7월6일) “사치 아닌 가치! 나도 포미족”을 재미있게 시청하였다. 시대의 트렌드를 잘 짚어 냈다. 포미족 유행은 단지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불황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현상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짚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달에 개최된 수제맥주 페스티발 영상을 보여줬는데, 수제맥주 페스티발이 포미족을 겨냥한 잘 기획된 페스티발이었다고 새삼 느꼈다. 가죽공예 수강생들 인터뷰한 내용도 좋았다.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소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역시 경제 불황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현상인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면 좋겠다. 반려동물 관련 내용은, 신선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매체에서 한번씩 동물 보호 관련 내용을 다뤄주면 시민들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김은주).	꼼꼼한 의견에 감사하다. ‘포미족’은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포미족의 특징은 ‘가치 소비’에 있다. 이 아이템을 다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렌디한 사회현상인 포미족의 유행을 단지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는데 맞추지 않고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가치 소비’인지를 제작진이 고민했다. 언급해주신 ‘미니멀리즘’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취재로 아이템화하는데 고민하겠다.			
교양	시사플러스(7월13일) “또 다시 멈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에서 대전시민들의 최대 관심현안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롯데가 주장하는 ‘소송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시사플러스를 오랜 수회 보면서 느낀 바 시사플러스는 너무 인터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상의 표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 등 조회를 해보고 대장상에 뚜렷한 지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때 비로소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상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풍부하게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전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자료를 얻어서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유성복합터미널은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소재다. 낡고 비좁아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는 현 유성터미널이기에 이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항상 높았다. 언급하신 인터뷰에 너무 의존한다는 지적은 제작진의 오랜 고민이다. 이를 타개하고 시청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재연, 컴퓨터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 노력하겠다.	○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서가 풍부하게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인터뷰(언론인)에 의존한 점이 아쉬웠다. 담당자 인터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인이나 공인중개사 인터뷰는 약간 성의 없게 느껴졌다(김은주).				
교양	시사플러스(7월20일) “세종시 착공 10년, 명품도시의 조건은? ”을 시청하였다. 기획의도를 잘 모르겠다. 전체적으로는 세종시 PR하는 게 목적인 프로그램 같았다. 그리고 학교 부족사태에 대해 다루면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인터뷰 한 것은 보기가 좀 불편했다. ‘강남’ 사람들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느낌이었다. 세종시 주민들의 주차난이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도 현상, 원인, 해법 등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자세히 다루었다. 시사플러스는 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왜 이 사람들 고민을 함께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시청하기에는 피로감을 갖게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 구도심 주민과 신도심 주민 사이의 융화 문제를 다룬 것은 신선했다(김은주).	올해는 세종특별시가 조성 10년, 개청 5년이 되는 해이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조성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분명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된 도시이기에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언론으로 명품도시로 가기위한 의제를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보도	시사토론M에서 “최저임금 7,530원 앞으로 과제는?”(7월23일) 제목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었다. 활기 없는 토론이 아니라, 긴장감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나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해 당사자가 패널로 직접 출연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생한 토론 기대한다(김은주).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찬반 의견이 확실한 패널을 섭외해 그들의 열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적합한 주제와 주제에 걸맞는 패널을 섭외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게끔 노력하겠다.	○		
기타	금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후반부에 방송되는 ‘문화이야기’ 음량 확인이 필요하다. 7/21, 7/7, 6/30 방송된 문화이야기 음량이 이전 뉴스 진행 음향과는 달리 음량이 갑자기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방송에서 반복된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이승선).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보다는 방송 진행시 문제라고 본다. 앵커 오디오 멘트 후 타이틀 음악이 나오면서 청감 상 메트와 음악부분이 다소 크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사전 제작하는 아이템은 사전점검을 하여 음량높이를 잘 맞추도록 하겠다.	○		
보도	7월16일 충청권 폭우 등 지역 재난 보도가 적절한지 살펴보겠다. 7월16일 뉴스데스크에서 폭우 관련 아이템은 조명아 기자의 1분44초(전체 방송시간 8분 3초) 취재보도 단 1건 이었다. 7월 17일 뉴스투데이에서도 조명아 기자의 전날 보도 1건이었다.	앞으로 재난 관련 뉴스 제작에 더욱 유의하겠다.		○	

	7월17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전체 17분15초 중 5분 50초로 현장, 기상예보, 폐수유입, 낙뢰 등 4가지 아이템을 보도하였다. 방송권역 내 폭우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재난상황 비상 뉴스취재망 가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날 뉴스투데이 보도에서는 최소한 전날 밤 상황, 피해, 복구 등 취재보도가 필요했다고 본다. MBC충북의 경우 7월16일 뉴스데스크에 5명의 취재기자가 투입되었고 영상취재팀은 5개팀 7명이 투입되었다. 7월16일 뉴스데스크 12분1초 중 9분5초를 할애하였고 7월17일 뉴스투데이 22분7초 중 12분35초를 할애하여 보도하였다. 7월17일 뉴스투데이에서 9개 아이템 중 전날 뉴스데스크와 다른 4개의 새로운 아이템이 취재보도되었다. 대전MBC 영상에서 피해차량 번호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보였다(이승선).				
보도	뉴스데스크(7/21) '폭염에 매연, 고통스러운 터미널 주차장' 보도의 경우 이산화질소 농도를 직접 재봤다는 멘트를 하면서 영상은 2013년 8월에 측정한 것이 나와 당황스럽다. 2013년 측정한 자료화면이 왜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이승선).	앞으로 뉴스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사생활 보호, 초상권 사용 동의 확보, 어린이 초상 활용에 강력한 유의를 요한다. 병원 진료 관련 정보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분류되는 인격권 영역이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받는 개인의 초상권은 철저한 동의가 필요하다. 안구건조증 관련(7/22 뉴스데스크) 대기실에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어린이들의 경우(뉴스데스크 7/22)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도 문제이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의 모자이크 처리 방식은 영상 사용의 윤리, 법적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7/22 아산 소방서가 제공한 아파트 화재 영상의 경우 노출될 필요가 없는 사생활이 공개되어 있다. 소방서 등의 국가기관이 제공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방송사용의 최종 책임은 대전MBC이다. 제공받은 영상자료 활용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이승선).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	

교양	건강플러스의 'TV주치의'코너 하단자막을 보다 더 노출했으면 한다. 프로그램을 중간부터 시청하는 시청자입장에서 볼 때 출연자가 누구이고 어떤 질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지 금방 알아볼 수 어렵다(김종문).	건강플러스의 하단자막과 출연자 성함은 가끔 노출하고 있다. 좀 더 자주 노출토록 하겠다.			
교양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이었다. 진행자 멘트에서는 OECD 국가의 남성의 여성 가사분담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가 언급이 되었다. 프로그램 전체에서 양성평등 관련 소재가 눈에 띠지 않는다.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이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지 등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강은혜).	양성평등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알고 있다. '아침이 좋다'에서 진행자 멘트로만 처리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보도	보도를 통해 ' 피서철 우리지역 가볼만한 곳'을 접하곤 한다. 최근 뉴스에서 이에 대한 소개는 없는 듯하다.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가볼만한 휴양지 등을 뉴스를 통해 소개되었으면 한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곳도 소개를 해주었으면 한다(강은혜).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		
교양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교과 수업 중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학생 10여 명이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했다. 해당 교사는 수치심에 수업 도중 교실에서 나왔다고 한다. 왜곡된 성의식을 콘트롤하여야 한다. 교육부와 시교육청, 일선 학교가 성교육 내용과 대응 매뉴얼을 점검, 개선하여야 한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이기도 해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성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으면 한다(강은혜).	지역에서 발생한,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다. 잘못된 성의식,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TV에서는 다루지 못했고 라디오 '생방송 오늘'에서 전문가를 통해 건강한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		
보도	4차산업 관련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KAIST와 ETRI 등의 기관과 연계해서 자문을 받아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보도 횟수도 늘리길 바란다(신성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획보도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 되로독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기타	홈페이지 시청자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 시청자의견을 보니 2016년 경우 대구MBC는 130건이 넘은 반	시청자의견이 올라오면 바로 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올린다. 시청자의 의견을 잘 담아 제작에 반영하겠다.	○		

	면 대전MBC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시청자의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신성철).				
보도	주요의제에 시민들 혹은 전문가 인터뷰를 담는다. 짧은 뉴스(1분 30초 내외) 시간에 의견을 담기위해 신뢰감 있는 전문가 인터뷰를 삽입한다.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를 보면 전문가의 내용이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MBC 뉴스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전문성 없는 사람의 인터뷰를 전문가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주길 바란다. 한 두 마디 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는 방지해야 한다(함진호).	전문가에 대한 검증을 보강해 시청자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전국 뉴스와 지역 뉴스의 안배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시점에서 지역뉴스를 취급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뉴스데스크의 경우 전국뉴스 진행 중 지역뉴스를 중간부터 취급하는데(저녁 8시27분에 들어가 저녁 8시33분에 종료) 가끔은 전국뉴스의 헤드라인 뉴스를 다 보지 못하기도 한다. 지역뉴스를 전국화하여 방송된 것이 다시 지역뉴스로 또 한 번 소개될 때는 뉴스를 한 번 더 다듬어 송출하길 바란다. 전국뉴스에 방송된 내용이 그대로 나가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동일 뉴스를 2번 시청하기 때문이다(송길헌).	뉴스 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 현재 전국 뉴스데스크에 송출된 아이템은 로컬 뉴스에서 재편집하고 있지 않다.	○		
교양	7월12일 <아침이 좋다>에 “손에 잡히는 개정교통법” 내용을 소개하였다. 단순전달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작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퀴즈 코너에서도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걸맞는 문제가 출제되면 좋겠다(정철상).	<아침이 좋다> ‘뉴스&정보’코너에서는 시청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있으나 좀 더 전달이 잘 되도록 애니메이션을 강화토록 하겠다. 퀴즈 코너에서 ‘주제’를 정하는 문제는 특정한 날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	
교양	“전국이 보인다(7/9)”에서 출연자의 멘트와 물소리가 겹쳐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되었다. 낚시체험에서 출연자 의상이 낚시에 어울리지 않아 촬영 전 점검이 필요했다(정철상).	물소리가 높아 진행자의 멘트가 전달이 잘 안 되었다는 문제는 더운 날씨 때문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		